

빈소로 송해길로...끝없는 조문 행렬

이순재·이미자 등 동시대 스타들 발길
“연예계의 상징적 존재” “세월이 아삭”
임시 분향소에도 시민들 추모 잇따라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현수막 걸려

이제 큰 별이 되어 시청자의 가슴에 남은 고 송해를 추억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연예계 스타들이 잇달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슬픔을 나누고 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송해길과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해기념관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도 한 송이 꽃을 바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60여년 넘는 세월, 굴곡진 한국 대중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채운 고인이 34년간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위로해온 시청자들이다.

●이미자 “너무도 아쉬워” 울컥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는 이날 이른 오전부터 북적였다. 방송인 임성훈, 김숙, 트로트 가수 박상철, 이찬원, 배우 전원주 등이 찾아와 유족들과 슬픔을 나눴다.

이순재, 이미자 등 동시대에 활약한 스타들도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순재는 송해가 “최고의 연예인이자 연예계의 상징적인 존재”라며 “평생 절제하고 후배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노력한 사람”이라고 돌아섰다.

이미자는 “최근 전화통화하며 조만간 식사하자고 약속했는데 갑작스럽게 세



시민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송해길에 설치된 송해 동상 앞에서 전날 별세한 송해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동상 주변에는 인근 주민들이 보낸 근조화환들로 가득 차 있다. 유지혜 기자

상을 떠나 안타깝다”며 울컥했다. 이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수많은 공연을 함께 하며 고생을 나눈 사이”라며 “세월의 흐름이 아쉽지만 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또 다른 이들은 SNS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가수 딘딘은 송해와 함께 광고를 촬영한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신이었던 저를 위해 스태프에게 ‘나보다 딘딘을 더 챙겨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추억했다. 배우 김희선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프로그램이 ‘전국노래자랑’”이라며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고

썼다.

후배 코미디언들은 10일 오전 4시 30분 고인의 영결식을 진행한다. 이어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송해길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을 둘러 장지인 대구 달성군 옥포리로 향한다.

●시민들도 헌화하며 묵념

송해가 타계 직전까지 출근했던 사무실이 자리한 송해길은 온통 추모 분위기로 가득했다. 거리에는 인근 주민들이 제작한 ‘송해 선생님,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

렸다. 시민들은 줄을 서서 송해 동상 앞에 헌화했다. 김지무(57) 씨는 “고인의 공연을 많이 봤다. 낙원동에도 애정이 깊으셨던 분”이라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고 싶어 찾아왔다. 마음이 아프다”며 슬퍼했다.

정부는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금관문화훈장을 고인에게 추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국민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주셨다”며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다”는 조전을 보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콘서트 뛰고 신곡 준비...돌아온 김호중 ‘광폭 행보’

대체복무 소집해제, 본격 활동 재개
11일 이어 19일 열리는 콘서트 참가
18일엔 신곡 ‘빛이 나는 사람’ 발표



김호중

통해 공개된다.

이어 19일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회 드림콘서트 트롯’을 통해 팬들과 만난다. 그동안 댄스음악 위주로 펼쳐온 ‘드림콘서트’에서 벗어나 트로트에

제작진은 “독보적인 성량과 깊고 진한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김호중이 클로징 무대를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화 분량은 26일 오후 5시 40분 KBS 1TV를

대한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남진·설운도·송가인·양지은·나태주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출몰동하는 무대이다.

김호중은 신곡 발표도 일찌감치 예고했다. 18일 ‘빛이 나는 사람’을 내놓는다. 대체복무 기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준 팬들을 생각하며 부른 곡이다.

이처럼 새로운 활동에 나서는 김호중이 국내외 팬들의 호기심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무대도 있다. 26일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플라시도 도밍고의 내한공연이다. 김호중은 스페인 출신으로 루치아노 파바로티·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꼽히는 플라시도 도밍고

의 공연에서 듀엣 무대를 펼친다.

2020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을 통해 주목받은 김호중은 성악가로도 활동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를 합친 말)라는 타이틀을 달고다녀 이번 무대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이 플라시도 도밍고의 자필 사인과 함께 내한공연에 초대 받았다. 듀엣으로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밝혔다.

7월에는 이탈리아로 건너가 유명 팝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와 색다른 협업을 선보인다. 또 하반기에는 전국투어 콘서트로 팬들을 만난다. 데뷔 첫 전국투어이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투어를 이어간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에스파

에스파 미니음반 ‘걸스’ 선주문 100만장 돌파

걸그룹 에스파가 다음 달 8일 발표하는 두 번째 미니음반 ‘걸스’(Girls)의 선주문량이 100만장을 넘었다. 지난 2일 예약판매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의 결과로 한국과 미국 동시 발매를 앞두고 컴백 전부터 밀리언셀러의 탄생을 예상케 한다. 이에 앞서 영어 싱글 ‘라이프스 투 쇼트’(Life's Too Short)도 6월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데뷔한 에스파는 데뷔곡 ‘블랙맘마’부터 ‘넥스트 레벨’과 ‘세비지’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음악 감독 정재일, 세계적 레이블 데카와 계약



정재일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음악 감독 정재일이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 레이블 ‘데카 레코드’와 글로벌 계약을 체결했다. 9일 데카의 모회사인 유니버설 뮤직에 따르면 정재일은 데카와 첫 파트너십 앨범인 정규 3집 ‘시편’의 인터내셔널 버전을 7월 22일 발매한다. 밴드 깃스 출신인 정재일은 이소라·박효신·김동률·이적 등 정상급 뮤지션들의 연주자와 프로듀서로 유명하며 영화 음악 감독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상 매체에 쓰인 독창적인 음악에 상을 수여하는 ‘미국 할리우드 뮤직 인 미디어 어워즈’에서 ‘오징어게임’으로 한국인 최초로 상을 받았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시청률 우상향...종영 앞둔 ‘우리들의 블루스’의 저력

2회 넘겨두고 최고 12.5%까지 상승
6월 1주차 드라마 화제성 지수 1위
‘넷플’ 비영어권 콘텐츠 세계 4위에

tvN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제주를 배경으로 평범한 이웃들의 회로에락을 자극적이지 않게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낸 덕분이다. 종영까지 2회만을 남겨둔 드라마가 쌓 최고시청률 성적에도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일 종영을 앞둔 드라마는 4월 9일 시청률 7.3%(닐슨코리아)로 시작한 꾸준히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 5일 방송분은 최고 12.5%까지 치솟았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8일 발표한



배우 한지민과 정은혜, 김우빈(왼쪽부터)이 출연한 tvN ‘우리들의 블루스’의 한 장면. 사진제공 | tvN

6월 1주차(5월 30일~6월 5일) 드라마 화제성 지수에서는 신작인 서현진 주연의 ‘왜 오수재인가’, 서예지의 복귀작 ‘이

브’ 등을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부문 세계 4위에 랭크되는 등 국내를 넘어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병헌, 신민아부터 김우빈, 한지민, 김혜자, 고두심까지 톱스타들이 총출동한 드라마는 2~3회 분량의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이 달라지는 유니버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생선가게 사장, 해녀, 선장 등 다양한 직업과 매력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가 차례로 그려지며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마지막 방송에서는 트럭 만들상을 운영하는 이병헌과 그의 어머니 김혜자의 사연이 담긴다.

유지혜 기자